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감정선을 읽는 시간입니다. 물론 바울의 감정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감성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감정을 노출합니다. 어떤 감정인가요?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잠시, 한국인들이 가진 감정에 큰 영향을 준 유교와 불교의 감정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교(儒敎)에서는 사단칠정(四端七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四端)은, 측은지심(惻隱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사양지심(辭讓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합니다. 다 마음에 관한 말입니다. 그중 수오지심(羞惡之心)은(바칠 수 미워할 오)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유교는, 또한 칠정(七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慾)**의 일곱 가지 감정입니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입니다. (구(懼)는 두려울 구입니다)

불교(佛敎)는 오욕칠정(五慾七情)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섯 가지 욕망과, 일곱 가지 감정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오욕(五慾)은, 재물욕(財物慾) 명예욕(名譽慾)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慾) 색욕(色慾)이고, 칠정은, 사람의 오관을 통해 일어나는 일곱 가지의 감정으로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입니다. ‘**희(喜)노(怒)애(哀)낙(樂)**’들어보셨죠?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기쁨, 희(喜)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낙(樂)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애(愛)-사랑. 오(惡)-미움. 욕(欲)-욕망이 첨부되어 7가지 감정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7가지 감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교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중용(中庸)으로 나아가며, 불교는 고집멸도(苦集滅道)를 통해, 그 감정들에서 해탈(解脫)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들은 통제하여 억누르거나, 그 감정의 영역에서 해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선용(善用)하고 발산(發散)하고 엔조이할 것은 엔조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정은 색깔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색깔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우중충함>이란 건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약해져, 나뭇잎들이 말라 떨어지는 낙엽일지라도, 얼마나 그 변색(變色)이 아름다운지 우리는 단풍구경을 갑니다.

붉은 단풍이 지고, 노란 aspen 단풍이 산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다양하고 섬세한 신성(神性)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배의 감성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요감정인 <부끄러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이나 영어에선 이 말이 두 단어로 분리되어있지만,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헬라어에선, 이 단어가 한 음절안에 들어있습니다. 에파이스쿠노마이 ἐν αἰσχύνῳμαι(epaischunomai)라는 말은, epi + 아이스쿠노마이(aischunomai)의 합성어(合成語)입니다.

다시말해, 본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그 근원이 매우 오래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부끄러워한다’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創世記) 창세기 2-3장입니다.

1) 창세기 2:2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 보쉬(bosh)입니다. 그 뜻은, ‘창백해지다’,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지연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에덴이 이상향이라 함은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 창세기 3: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때먹고 숨어있는 아담부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앞에서 아담이 대답한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저들이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문제와 그 해결책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示唆點)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문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질문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I.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16절 첫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福音)**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1-4절을 다시 봅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복음(福音)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는 말입니다.

* 이 말의 상황은, 아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일 겁니다.

당시는 1세기 초기교회(初期教會)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300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소수분파일 뿐이었으며,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 쉽지않고 부끄러운 시대였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속화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hy Christian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입니다. 여론조사의 샘플이 워낙 적으니까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Shy Trump** 5%는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Shy Trump**란 무엇가요? Trump를 지지하지만 주변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는 Shy christian인가요? 복음은 사랑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II.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16-17절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救援)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16)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救援 the salvation)**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의 키워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느냐 ‘구원’으로 보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으로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그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 4:12 “**천하인간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단지 진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행전4장해보면 사도들이(베드로와 요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공회앞에서 목숨 걸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마태 10:32-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에는 인종적(人種的)인 장벽(障壁)이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온 것이지만, 결국, 당시의 주류인, 헬라인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선민(選民)사상을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끄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魁首)니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복음은,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 첫 부분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라고 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합니다. 바울의 ‘의의 담론(談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인간을 의인(義人)이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기에 혼돈스럽습니다.

창세기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완전함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여는 힌트가 두 개있는데 하나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6: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는 말씀에서 힌트를 찾기도 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저는 진정한 의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아가 비록 당대에는 최고의 의인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의인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에 의인언급의 또 하나의 예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고지 받고, 조가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8: 23-25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과의 deal은, 의인 50, 40, 30, 20, 10사람에서 끝났습니다.

혹자는 더 줄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무리 숫자를 줄여도, 진정한 의인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였을까요?

현실세상에서 정의(定義)란 무엇일까요? <역사(歷史)는 승자(勝者)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자는 ‘정의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문화(文化)와 사회(社會)의 성격에 따라, 정의의 규정은 달라지고, 그리하여, 세상의 정의는 상대주의적인 정의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律法)과 계명(誡命)을 지켜서 구원(救援)을 얻으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매우 논리적(論理的)이고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행위주의 의인론에 빠져서 허덕거립니다. 거기에 깊은 허위의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평생 도를 닦으면 인간이 선해져서 의인이 될 것처럼 가르치고 체계를 잡으나,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책략(策略)이요 인간을 호도(糊塗)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20절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면목(眞面目)이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義)를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1-4절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주인공)은 이스라엘사람입니다. 아마 그들중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더 어필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熱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처럼 위험(危險)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열심을 바울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확신과 교리화는 혼돈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이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을 성취하려는 행위 구원론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고상한 도덕론자들 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박해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기에 수동태(受動態)로 기록됩니다.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로마서 3:10-12절일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바라고 했는데, **어디에 기록?** 아마도 시편 14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14:2-3)

로마서 4: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代贖)의 죽음이 우리를 의(義)롭게 해주는 근거(根據)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어진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수여된 의이며, 은혜로 주어진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III.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引導)하기 때문입니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든 길의 끝을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자이언 케년의 서북쪽 지역을 탐사 하였습니다. Virgin에서 시작된 이 길은 Zion의 ‘West Temple’의 뒷모습을 보게하고 Lava point를 거쳐 Kolab Reservoir에 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25마일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거기엔 호수가 있었습니다. 남부유타에서 처음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 복음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구원과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번이나 강조된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의 대체어(代替語)인 <행위, 행위, 행위>, <내 죄, 내 죄> 하며 늘 자기 행위만 바라보고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들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믿음>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1:17절 (NIV)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1:17절 (KJV)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이것은 관계(關係)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위의 결과로 나오라 하시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죄의 영향력안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으로 그 금단의 선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행위로 나오게 하신다면, 그것은 매순간 우리에게 심판대가 되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면 어쩌면 죽음 이전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일은 전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때에라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분의 품안에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기록된 것이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이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의 하박국서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박국 2:3-4절입니다.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첫 번째 ‘그’는 갈대아사람이고, 두 번째 ‘그’는, 갈대아에 침략받는 이스라엘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얼마나 상반되는지요

* 갈대아는, 원래 바벨론의 남부에 살던 주민을 지칭하던 말로, 후에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왕하 24:2; 렘 21:4; 단 1:4; 행 7:4)

하박국1:6-11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준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

하며 모든 전고한 성들을 비웃고 흥역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비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들의 침략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 하박국 2:3절의 ‘묵시(默示)’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음은 믿음으로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갈대아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묵시)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약성서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의 이 용어를, 세 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롬1:17절이고요,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0-14절을 봅시다.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35-38절입니다. 이 구절도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려줍니다.

“고난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며, 다시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멋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의인의 삶입니다.

* **롬11:33-36입니다.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중 하나입니다.** “**깊도다 !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심을 알았느냐 36.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감성(感性)말입니다.

*.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하고 전하게 하여주세요. 행위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